



#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Korean Interdisciplinary Council on Early Intervention:  
KICEI

## : 한국 장애 및 위험군 영아의 현황, 문제점 및 조기개입방안

### ◆ 초대어 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가족, 사회,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아의 조기 발견, 적절한 조기개입을 통한 발달촉진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의료, 재활치료, 교육, 보육, 사회복지, 부모 등 관련 전문가들은 만 3세 미만의 장애 및 위험군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중심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가족중심 조기개입’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가족중심 조기개입’을 널리 보급하고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며, 전문가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랜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던 관련 전문가 모임이 협회로 공식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발걸음으로 협회창립일 11월 3일(토)에 각 전문 분야별 **장애 및 위험군 영아의 현황, 문제점 및 조기개입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10월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의학과 전문의)

## ■ 창립기념 심포지엄 및 총회 일정 ■

- 일 시 : 2018.11.03.(토) 09:30~12:10 심포지엄  
12:10~13:00 총 회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주 제 : 장애 및 위험군 영아의 현황, 문제점 및 조기개입방안
- 주 최 : 한국 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창립 준비위원회

시 간	내 용	이 름
09:30-09:35	인사말	
09:35-09:50	축사 및 격려사	
09:50-10:10	영아 조기개입에서의 재활의학	박주현(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10:10-10:30	미숙아의 현황, 문제점과 대책	김민희(건국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10:30-10:40	휴 식	
10:40-10:55	조기개입 프로그램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 : 해외 사례 및 국내 개선 방향	김장곤(유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10:55-11:10	한국 장애 및 고위험군 영아의 재활치료 접근현황 및 문제점	최은옥(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팀 대리)
11:10~11:25	특수교육 대상영아 실태 및 현황	최윤희(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교수)
11:25-11:40	영아기 장애아 가족의 욕구와 지원방향	조성훈(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영유아지원팀 팀장)
11:40-11:55	가족의 삶을 바꾼 조기개입	이연실(부모)
11:55-12:10	영아 조기개입의 패러다임 전환	최진희(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부설 영유아발달가족지원 연구소 부소장)
12:10-13:00	총 회	

- ◆ 협회가입 및 심포지엄 참가비 : 10,000원  
(참가비 납부자에 대해 협회 회원등록비 면제)
- ◆ 사전등록 신청 기간 : 10월 26일(금)까지
- ◆ 사전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오른쪽 링크) 후 참가비 입금
- ◆ 참가비 계좌 : 1002-030-693794 우리은행 예금주 조성훈
- ◆ 단체 접수는 간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 문 의: 간사 손은주 ☎010-6211-1861



참가신청 링크  
<https://to2.kr/aLS>

## 오시는 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지번 : 서소문동 37)

### 지하철역

시청역 ① ② 10번 출구 도보 6분 을지로입구역 ② 1-1번 출구 도보 15분

서대문역 ⑤ 5번 출구 도보 15분 광화문역 ⑤ 6번 출구 도보 15분

2호선 시청 11번 하차 시에는 출구에서 전방 2분정도 걸으셔서  
국민은행과 KAL빌딩사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